

이기는 삶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스라엘 족장 시대의 우스 땅에 읍이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신앙이 돈독 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를 시기한 사탄이 하루 동안에 읍의 재산을 모두 없애버리고 자식들 또한 일시에 죽게 하였다. 그러나 읍은 자신의 슬픔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이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다.

그러자 사탄은 읍의 온몸이 문둥병에 걸리게 하여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에 괴로워하는 읍을 보다 못한 그의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결하라”고까지 독설을 퍼부었으며, 그의 친구들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선진 결과와 이런 것이냐”라며 읍을 비웃었다.

너무나 괴로운 읍은 자신이 태어난 날이 없었다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에 대하여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길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을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읍에게서 고통을 거두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자식과 재산으로 축복하셨다.

모든 일에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남들이 포기할 때 한 발 더 내딛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

다음은 오직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이겼다는 극기승자(克己勝者) 조희성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고 참고 견딤이 없었던들 마귀를 꺾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를 꺾고 부수고 마귀를 짓이겨려면 말할 수 없는 인내와 견딤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긴자가 그저 뉘이 아니요, 마귀는 집요하게 참고 견디면 못 견디는 것이다. 마귀의 영은 인내심이 없는 것이다. 바로 마귀의 약점이 인내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가 많을수록 인내심이 없고 죄가 없을수록 인내심이 강한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또

참고 견딤이 있어야 마귀는 손을 번쩍 들고 멸함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은 바로 인내의 길인 것이다. 여러분이 나에게 어떻게 이겼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끝까지 참고 견디 것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끝까지 참고 견디기만 하면 구원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긴자의 만분의 일만 해도 구원권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기만 참으면 구원은 구세주가 해주는 것이다. 해도 해도 안돼도 좋으니 하려고 노력만 해라. 애를 쓰고 기를 쓰는 자는 거머이 이끌고 가겠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사망을 제거해야 비로소 말세
The last days only when death is eliminated.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이 말세인 줄 알고 있다.
▶ People know that the end of this world is the last days.

말세란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과 병고와 재난과 가난을 주어 사람들을 죽게 하던 마귀의 신이 되는 사망을 제거하는 때가 말세다.
▶ The last days are the time when death, which is the god of the devil, who afflicts humans and causes people to die by giving pain, sickness, calamity, and poverty, will be eliminated.

욕심이 죄요, 죄가 마귀요, 마귀가 사망이다.
▶ Greed is sin, sin is the devil, and the devil is death.

마귀를 죽이는 자가 나와서 죄와 사망을 제거해야 비로소 말세가 되는 것이지만 아무 때나 말세가 되는 것이 아니다.
▶ Only when the one who kills the devil comes out and removes sin and death will the last days come to an end, not at any time.

마귀를 전멸시켜야 마귀 세상이 끝나고 잘사는 세상이 오는 것이다.
▶ Only when the devil is annihilated will the world of the devil come to an end and the well-lived world will come.

평화의 시대, 안식의 세계 즉 지상천국이 말세다.
▶ Era of peace, the world of rest, that is the heaven on earth, is the last days.

말세의 뜻도 모르고 말세의 정의도 모르고 아무 때나 말세인 줄 알고 악한 일만 보면 말세라고 잘못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다.
▶ There are people who do not know the meaning of the last days, do not know the definition of the last days and think that it is the last days at any time, and when they see evil things, they mistakenly say that it is the last days.*
- From the words of the Victor Christ.
by Alice

이긴자께서는 하나님과 연결된 제단 식구들의 마음 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늘 말씀하시길, 제단 식구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전 세계, 아니 전 우주의 흐름이 좋게도 나쁘게도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마귀 세력의 준동으로 인한 작금의 사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단 식구들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글은 제가 제단에 온 90년 경, 구(舊) 제단 지하에서 처음 예배를 보고 새 식구로서 받은 충격과 금강증을 토대로 정리했던 글입니다. 오래 지난 글이지만, 이러한 시국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 자세에 대해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배 자세에 대한 문답〉

〈전도자〉 제단에 처음 나오시면서 궁금하신 것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물어주십시오.

〈새식구〉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승리제단에 와서 예배 보는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예배의 자세와 형식에도 분명히 깊은 뜻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나 수행을 하다 오신 분들에게는 무척 낯선 모습이라 아닐 수 없을 겁니다. 먼저 무릎 꿇는 자세의 의미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도자〉 당연한 의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왔을 때 마찬가지로 충격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곧 예배 자세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릎 꿇는 자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신일여(心身一如), 즉 몸이 바로 서야 마음이 바로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기(氣)의 흐름과 마음이 모두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해서 모든 도(道)에서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척추를 바로 세워 코끝과 배꼽이 일직선으로 일치하는 바른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 무릎 꿇는 자세는 금강좌(金剛坐)라 하며 요가나, 불교의 선(禪), 우리나라의 고유의 행법 등에서 많이 쓰인 자세입니다.

금강좌는 결가부좌, 반가부좌 등의 다른 어떤 자세보다도 골반을 긴장,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고 특히 허리 뒤에 있는 명

문혈(命門穴)을 열어주는 자세입니다. 명문혈은 제23요추 사이에 있는 혈(穴)자리인데, 이 혈(穴)은 말 그대로 ‘생명의 문’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단전과 더불어 원기(元氣)가 생성되는 곳으로서 ‘후단전(後丹田 : 몸 뒤에 있는 단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혈입니다. 자동차의 주유구(注油口)와도 같은 곳이라 할 수 있겠지요. 실제로 단전호흡에서는 이 명문혈에 직접 기(氣)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강좌는 이긴자에서 쏟아져 나오는 감로 이슬을 받기에 가장 좋은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는 진정한 뜻은 그 몸 자세 보다는 마음자세, 즉 체법(體法)이 아닌 심법(心法)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나를 죽이고 짓이기는 곳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고 주님을 모시는데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좋은 자세가 있을까요? 무릎을 꿇는 금강좌야말로 나를 때려부수는 자세요, 하나님 앞에 마귀 나를 복종시키는 자세요, 온 몸과 마음과 생명 전체를 맡기는 자세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거꾸로 서는 것이 더 합당한 자세라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이 스승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자세가 아닐까요? 따라서 말씀 중에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편한 자세로 앉을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찬송 중에는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식구〉 무릎을 꿇는 자세 하나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도 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목청껏 찬송을 하는 것이 제게는 낯설면서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도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전도자〉 그렇습니다. 찬송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 고유의 수행법 중에 영가무도(靈歌舞道)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단전에서 끌어올린 소리로 노래를 함으로써 기혈을 타통(打通)시키며 심신을 정화, 고양시킨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단전호흡 계열의 공부에서도 단전에 힘을 주고 가사의 뜻을 잘 새기며 노래를 하면 기(氣)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백회(百會 : 정수리)를 통해 우주의 신령한 기운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가의 측면에서도 찬송의 의미를 음미해 볼 만합니다. 요가에서는 차크라를 중시합니다. 요가 체계에 의하면, 차크라란 우주를 이루는 영적 에너지가 신체 내에 존재하는 자리로서 영적 에너지의 센터라 할 수 있는데 척추를 따라 7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나하타(anahad) 차크라를 가승 한복판 뒷쪽 중간에 위치하며 순수사망의 에너지인 아가페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이 차크라의 의식이 고양되는 순간 눈부신 빛을 방사하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며 회전하는데 이것이 상대를 타고 흐르면 신을 위한 노래가 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고도로 사모하는 가운데 의식을 온전히 이긴자에게 모으고 찬송을 부르면서 아나하타 차크라가 열려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가슴에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의 참뜻은 이긴자의 다음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땀 가사를 잘 음미하며 부르도록 하세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 것이올시다. 이긴자 하나님과 같은 심정으로 같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과 마음의 사이클이 맞지 않을래야 맞지 않을 수 없는 고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게 되며 그대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한 이긴자께서는 찬송을 할 때 진심으로 울부짖는 심정으로, 허겁지겁 매달리는 지극한 심정으로 하셨기에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5분만 찬송을 하시면 온몸이 땀으로 젖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은혜를 당길 때 들어주시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었습니까?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참고 하셔서 열심히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새식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수를 치는 것은 아무래도 거북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도자〉 그럼 먼저 기(氣)차원에서 접근해 봅시다. 동양 의학에 따르면, 인체에는 14경락과 기경 8맥, 그리고 657개의 경혈이 있습니다. 경락(經絡)이란 간단히 말해서 생명의 기운인 기(氣)가 인체 속에서 흐르는 길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혈액이 흐르는 길인 혈관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혈(經穴)이란 경락을 따라 몸속을 흐르는 기(氣)가 신체외부와 교류하는 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체 내부와 외부로 기(氣)가 드나드는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경락과 경혈이 온몸에 퍼져 있어서 기(氣)의 흐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온몸의 경혈과 경락이 온 전체에 그대로 복사된 듯이 옮겨져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수치집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생각해보십시오. 손뺨을 세게 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손바닥 전체에 수치집을 가득 꽂은 것과 같으며 따라서 몸 전체에 짐을 놓은 것이 되어 온몸의 경락을 뚫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확실한 건강법도 드물 겁니다.

그런데 이긴자께서는 손바닥 사이에서 마귀를 박살내는 심정으로 박수를 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의학적으로도 정확한 말씀입니다.

최고의 한의학자인 황제 내경에 의하면, 신체에는 유헤(俞穴)와 모혈(募穴)이라는 중요한 혈이 있는데 유헤(俞穴)는 우주에서 병 기운을 머금은 사기(邪氣)를 받아들이는 혈자리로서 척추를 따라 등쪽에 분포하며, 모혈(募穴)은 이 유헤를 통해 들어온 사기(邪氣)가 따로 모이는 자리로서 유헤와는 정반대로 가슴과 배쪽에 분포합니다.

수치집상으로 보면 유헤는 손등에, 모혈은 손바닥에 분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박수를 치게 되면 손바닥의 모혈을 강하게 때리게 되니, 온몸으로부터 모혈에 모인 사기(邪氣)=사령(邪靈)=마귀를 박살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손바닥 사이에서 마귀를 죽이라는 이긴자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성자로 추앙받는 라마크리슈나는 “끊임없이 힘차게 영원한 어머니(하나님)를 부르며 미쳐야 한다. 지금 이 시대(kali-yuga)에 알맞은 수행법은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로서 신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조용한 명상보다 훨씬 빠른 결실을 가져다준다. 신의 성(城)은 기습적으로 빼앗아야 한다.”라고 하며 스스로도 아침저녁으로 손뺨을 치며 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저희 승리제단에는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터져 나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손뺨을 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나를 짓이겨 죽이는 순간이요, 나는 사라져 버리고 오직 이기신 하나님만이 존재